

의안 번호	2158	<b>[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0. 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0. 6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0. 19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### 가. 제안이유

-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확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 양양을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‘소송대리인’추가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(안 제5조)
  - － 본안소송 1건당 300천원 ⇒ 500천원
  - － 소액사건, 신청사건 50천원 ⇒ 100천원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민사소송법」 제87조, 제88조
-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5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확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양양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종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**4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## 근거법규

### 민사소송법

제87조(소송대리인의 자격)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.

제88조(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) ① 단독판사가 심리·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,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·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,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 민사소송규칙

제15조(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) ① 단독판사가 심리·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6.>

1. 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

2.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

## 하는 사건

가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(변론의 병합 포함)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

나.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 사건(다만, 가압류·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)

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당사자와 고용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·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